

기획조사 06-043

WTO/DDA 협상 잠정중단이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 주요국 반응을 중심으로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WTO/DDA 협상 잠정중단이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 주요국 반응을 중심으로 -

요 약

□ DDA협상 잠정중단으로 DDA 타결 가능성 불투명

- 2006.7.24 WTO 의장 피스칼 라미 DDA 협상 잠정중단 선언
 - 농업협상에서 첨예한 대립, 미국은 농업보조금 삭감에서, EU는 농산품관세에서 만족할 만한 양보안을 끝내 제시 못함
-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DDA협상 논의 재개의 긍정적 전망과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의 우위와 신속처리권한의 2007.7월 종료가 확실히 되어 수년간 DDA협상 논의가 재개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 혼재
- WTO위상의 약화,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될 가능성 높음
 - 전 세계적인 FTA확산 경향은 한미FTA 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양국 정부가 협상에 더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고, 이에 따른 한미FTA비판론자의 반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

□ 주요국 대외통상협상을 FTA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을 언급

- 미국, EU, 인도, 브라질
 - 미국, EU, 인도, 브라질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DDA협상의 재개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대외통상전략은 양자간 또는 지역내 자유무역협정을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 이미 다수의 FTA를 체결한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이번 DDA협상 잠정중단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다른 국가

들에 비해 적음

- FTA에 대외통상협력의 중점을 두고 매진해온 것이 올바른 정책이었다고 정부 및 재계 등지에서 평가받고 있음

○ 한국 FTA협상 확대 가능성

- 현재 한국과 FTA협상 중에 있거나 추진 중인 멕시코, 캐나다, 미국, EU등의 국가들이 DDA협상 잠정중단선언이후 FTA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바 있어, 향후 이들 국가와의 FTA협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FTA협상 매진하되, DDA관심유지 필요

- FTA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FTA협상 체결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은바 우리나라의 FTA 협상이 늦어지게 되면 해외시장 손실이 우려
- 그러나, G6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나마 DDA협상의 재개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협상의 급격한 진전가능성 배재할 수 없어 DDA관심유지필요
- FTA는 궁극적으로 다자간무역협정으로 향하는 징검다리
 - 다자간무역협정없이 FTA만 존재할 경우 FTA 회원국들이 비회원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발호우려
 - 여러 FTA사이의 무역규범이 상이해 세계무역질서의 복잡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이 FTA가 세계무역질서의 복잡화와 지역간 보호무역주의로 도구화되지 않기 위해서 WTO와 같은 다자간협정이 유지되어서 전체적인 FTA의 실태와 운영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요국 정부 및 정부관계자 반응 요약>

국가	DDA협상 중단에 따른 반응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미국	- DDA협상잠정중단에 대한 자국에 대한 비난 유감표명 - 의회는 협상중단 환영 입장 - 브라질과 함께 DDA재개의지 표명	- DDA대안으로 FTA를 추진하는 여부에 대한 정부공식논평은 자제 중 - 의회의원들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EU	- DDA협상 잠정중단의 원인을 미국측에 돌림 - WTO 의사결정시스템강화 위해 정부대표이외에도 각국 의회대표 WTO의사결정시스템에 포함 제안	- 빈곤국·개도국들과의 양자 또는 복수적 통상협정 체결과 아시아 국가와 FTA적극 추진 표명 - 그러나, WTO체제의 신뢰 상실과 양자협상의 확산 시 무역규범 복잡화 우려
인도	- DDA협상중단이유로 미국의 농업보조금 강력 비판 - DDA협상중단이 현 인도의 연평균 8~9%의 고도성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카말 나스 상공부 장관은 향후 FTA에 더욱 매진의지 발표 - FTA가 다자간무역협상을 촉진시킨다고 인식
브라질	- DDA협상재개를 위해 미국과의 회담, UN 코피아난총재에게 중재요청 등 다각 노력중 - WTO에서 통상관련 분쟁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을 우려	- WTO에 표면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FTA체결에 총력 전망
호주	- DDA협상 중단의 우려 표시하나, 농업부문에서 “어설픈 성과 보다는 무성가가 낫다”입장 - 9월 DDA재개를 위한 50여개국 통상장관 모임 추진중	- 야당과 일부 민간기관은 FTA가 다자간협상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 존재 - 정부의 구체적 언급 없으나, 재계와 정부 FTA 확산 전망
일본	- WTO 중심 무역자유화 추진해움, DDA 협상중단사태 우려 - 비회원국에게 차별적인 FTA등의 촉진으로 “세계경제 블록화” 우려	- FTA협상중심으로 당분간 통상전략 추진 - DDA 협상재개 노력지속
캐나다	- DDA협상중단으로 인한 자국농산물 수출시장 확대 실패에 대	- 기존 FTA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였으나, 적극참여 필요성 제시

	한 우려 표명 - 농가측에서는 DDA협상합의를 대비 약속했던 보조금삭감을 유예할 것을 요구	- DDA협상재개를 위한 노력 지속
멕시코	- DDA협상중단이 개도국에 큰 타격을 줄 것임을 전망	- 원부자재수입을 위한 FTA - 양자간 FTA를 통한 선진국 산업보조금 극복노력
칠레	- 세계40여개국과 FTA를 체결 중 이어서 DDA협상중단이 미치는 영향은 크질 않을 것으로 전망	- 정부 및 재계에서는 이번 협상 중단을 계기로 그동안 칠레의 FTA중심의 통상정책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평가
파나마	- DDA협상재개를 희망	- 현재 미국과의 FTA협상자체도 잠정중단 상태 - 미국과의 FTA협상은 DDA와 무관하게 진행할 예정
중국	- DDA협상 중단으로 반덤핑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대두 우려	- 자원확보 FTA 적극 추진 - 동아시아지역 및 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지역 FTA 추진
태국	- 자국이 경쟁력이 있는 농업시장에서의 시장확대 실패에 대한 우려	- 태국내 일부는 DDA에 의한 전면적 개방보다는 FTA를 통한 경쟁력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방을 선호 - 정부관계자는 WTO가 여러FTA를 조정하는 기구로서 위상정립을 제안
싱가포르	- 도시국가로서 다자 또는 양자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임한바, DDA협상 중단에 대한 우려 표명과 재개 노력 밝힘	- WTO이외에도 ASEAN 지역경제협력기구에도 적극참여하는 등 동아시아의 FTA Hub를 목표로 양자간 FTA에도 적극적으로 임함
말레이시아	- Cairns Group의 일원인 동시에 신흥공업국으로서 농산물과 NAMA협상에서 관세인하 등의 시장개방확대 기회손실 우려표명	- DDA협상 중단때문에 미국등과의 FTA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것임을 밝힘

목 차

I . WTO/DDA협상 잠정중단 개요	7
-----------------------------	---

1. 개요

2. DDA협상재개전망

3. DDA협상 잠정중단이 FTA에 미치는 영향

II . 각국의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12
------------------------------	----

III . 시사점	47
-----------------	----

첨부 1. DDA협상진행과정	49
-----------------------	----

I. WTO/DDA협상 잠정중단 개요

1. 개요

□ 2006.7.24 WTO 의장 파스칼 라미 DDA 협상 잠정중단 선언

○ 7.23 주요 6개국(G6)¹⁾회의에서 EU·미국 등의 선진국과 인도·브라질이 대표하는 G20 개도국그룹²⁾ 사이의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 접근(NAMA)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³⁾

- 삼각구도협상(Basic Triangle of Trade-off) : EU와 G20는 미국의 국내농업보조금 삭감을 주장, G20와 미국은 EU의 농산품관세를 감축요구, EU와 미국은 개도국의 공산품과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요구

- 미국은 농업보조금 삭감에서, EU는 농산품관세에서 만족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하지 못함

○ WTO협정 구속력 약화가 우려되며, 세계 각국의 FTA협상태도 및 우리나라의 무역과 한미FTA등의 FTA협상에 다대한 영향 예상

2. DDA협상재개전망

□ 긍정적 전망

○ 실질적으로는 주요 6개국(G6)의 협상만이 결렬된 것으로 DDA협상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잠시 소강상태에 놓인 후 협상국들이 입장을 정리, 논의재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존재

1) 미국, EU, 인도, 브라질, 일본, 호주

2) 인도, 브라질을 중심으로 DDA협상에서 농업보조금 삭감을 주장하는 개도국 그룹

3) DDA 협상 중단의 자세한 이유는 서진교 및 송유철 (2006) “DDA 협상 중단의 영향과 향후 전망” KIEP 참고

- 우루과이라운드(UR)의 경우 1990년 한때 실질적으로 협상이 잠정중단 되었으나 당시 WTO의장이었던 Dunkel에 의해 1년후 Dunkel draft를 제시되었고, 1994년 UR타결을 이룸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Susan Schwab과 브라질 외교부장관 Celso Amorim의 7월 27-29일 회담에서 DDA의 조속한 재개 노력 의사 표명
- 세계 각 정상들의 DDA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 표명

□ 부정적 전망

-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2007. 7월 신속처리권한⁴⁾의 종료로 수년 내 DDA협상 재개 힘들 것이라는 전망 존재
- WTO 협정 전체의 구속력약화, 세계 각국의 FTA체결 매진으로 인한 지역간 보호무역주의 대두 우려 팽배
- 선거권자들의 시장개방 반대로 인해 각국 정치적인 어려움 존재
-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계층의 수입증가 제자리 상태이거나 줄어 들고 있는 현상의 원인을 자유무역에 기초한 시장개방으로 돌림⁵⁾

4) 신속처리권한이란 미국이 합의한 WTO 등의 무역협상 결과를 미국의회가 수정 없이 가부의 투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의 대외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

5) 미국, 프랑스, 개도국들이 이슈는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음. 개방반대론자들은 비록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이익집단으로서의 결집력은 강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붕괴되어도 그 영향이 장기적이고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DDA협상의 실패로 인한 책임은 적으나 DDA협상이 성공했을 때 피해를 보는 집단은 조직화가 되어 있고, 피해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은 매우 큼

3. DDA협상 잠정중단의 영향

☐ WTO회원국간의 무역분쟁 증가

○ 무역규범 토론의 장 상실

- 각국은 DDA협상을 통해 몇몇 반덤핑 규정 등 불합리한 무역규범을 개정하려고 노력
- DDA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각 WTO 회원국들이 상대 회원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이나 WTO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 분쟁해결기구에 적극 제소 전망

☐ WTO 사무국 및 분쟁해결기구의 권한 약화

○ DDA 협상 중단으로 WTO에 대한 신뢰 손상

- DDA협상 결렬시 신규도입기술규제 통보의무 등 WTO 의무위반 사례 증가 우려
- WTO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각 회원국들에 대한 구속력약화 가능성

☐ FTA협상 가속화 전망

○ DDA협상의 재개여부를 떠나 각국 통상정책이 다자간협상에서 FTA로 중심을 옮기게 될 가능성이 높음.

- EU, NAFTA, ASEAN 등 각 지역별로 경제권역이 나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규모가 큰 지역별 FTA를 중심으로 지역별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할 가능성이 있음.

- 지역별 FTA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의 FTA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새로 대두되는 지역별 보호무역주의에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자유무역협정(FTA)확산 이유

다자간무역협정(WTO)이 존재하는 가운데, 지역별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촉진시켰던 주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다자간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속도의 지지부진함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이 양자간 또는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시장개방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둘째는, EU, NAFTA등의 세계 주요국들의 지역경제블록화 현상이 새로운 경제블록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FTA협상의 도미노식 확산이 이루어졌다. 세번째 이유는 시장확대를 추구하는 기업의 적극적 FTA 촉구노력을 들수 있다. 상호호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간의 양자간 경제협력은 시장규모의 확장, 기술전파, 투자유치를 증가시킴으로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 추진 요구를 통해서 FTA확산된 측면도 있다. 또한, 국내·외국 투자자들의 투자유치 등을 위한 시장개방의 신뢰성을 공고히 하기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FTA 확대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FTA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두개의 국가 또는 한정된 수의 복수 국가들이 모여 협상을 하기 때문에 다자간 협상에 비해서 협상타결의 가능성이 높고 협상속도가 신속하다. 세계무역 통계를 보면 최근 자유무역지역내 무역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UNCTAD에 의하면 2000년 40%에 그치던 지역내무역량이 2005년에는 5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 Bernard M. Hoekman and Michel M. Kostecki. (2001).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및 UNCTAD (2005)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 DDA협상의 잠정중단이 한미FTA에 미치는 영향

- 전세계적인 FTA확대 가속화로 한미FTA도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몇몇 국회의원들은 DDA 협상 잠정중단선언 이후 한국·말레이시아와의 FTA에 행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음
- 한미FTA협상의 가속화는 협상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협상포지션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FTA가 DDA협상에 비해 더 심화된 시장개방을 논하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FTA를 원하는 국가가 늘어날 경우 미국측이 우리와의 FTA협상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
 - 반대로, 우리와 FTA를 하기 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때 우리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국이 세계1위의 시장임을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음
- 한·미 FTA협상의 가속화는 반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됨
 - 한·미FTA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는 측에서 DDA협상결렬로 인해 한미FTA협상속도가 가속화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음
 - 세계화에 비판적 지지입장인 국제NGO Oxfam은 FTA가 확산이 될 때,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협상에 불리할 것으로 전망

II. 각국의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응

한 국

가. 정부 반응 및 대응 동향

-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회원국간의 공통된 무역질서를 세우는 다자간 협상이 이상적이지만, DDA협상 고착이 장기화 될 경우 FTA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도 DDA가 좌초될 경우 FTA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
-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최근 DDA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앞으로 양자간 FTA 협상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
 -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 새로운 FTA협상을 단계적으로 중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한미FTA 협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
 - DDA협상과 한미FTA는 서로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DDA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감축폭 등을 결정할 품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라고 설명

나. 민간 반응 및 대응 동향

- 시장개방확대를 찬성하는 언론이나 기관들은 한미 FTA의 중요

성이 부각되었음을 강조

- DDA협상재개 가능성 여부를 떠나, 무역자유화의 논의의 중심이 FTA로 이동했으며, 세계적인 FTA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 수출시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 또한, 한·미FTA이외에 한·EU FTA 한·중 FTA에도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
- 삼성경제연구소 광수종 수석연구원은 DDA 협상 결렬에 따라 세계적으로 양자간협상의 주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
- 한국이 미국의 FTA 협상 우선상대에서 최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
-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DDA 협상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한미FTA 추진 동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언급
-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무역촉진권한의 시한과 한미 FTA협상 일정의 연계 중단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EU 등 주요 국가와 FTA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한미FTA에만 몰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
- 한국 노동계는 DDA와 FTA 모두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DDA의 중단을 일단 환영
- 그러나 DDA 협상 중단으로 인해 FTA 반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DDA협상이 다시 재개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임.

일 본

가. FTA추진 국가 현황

- 일본은 타이, 필리핀을 비롯한 세계각국과 FTA교섭을 추진중이지만 체결후 발효까지 완료한 나라는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의 3국에 그친 상태(2006.7월 기준) 기타 추진 국가는 하기 표 참조.

<일본의 FTA/EPA 추진 국가 현황(2006년 7월 기준)>

국가	FTA/EPA 추진 현황
싱가폴	기체결, 2002년11월 협정 발효
멕시코	기체결 2005년4월 협정 발효
말레이시아	2005년12월 협정 체결, 2006년 7월 발효
타이	2004년2월 교섭 시작, 서명을 위한 최종점검중
필리핀	2004년2월 이후 교섭 중
인도네시아	2005년7월 이후 교섭 중
베트남	2006년부터 교섭 중
부르나이	2006년부터 교섭 중
아세안 전체	2005년4월 이후 교섭 중
한국	2003년12월 이후 교섭 중
칠레	2006년2월 이후 교섭 중
GCC(사우디, 아랍수장국연맹,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2006년5월 준비회합(교섭미개시)
인도	2006년7월 협상 개시에 합의
호주	2005년11월 이후 정부간 공동연구
스위스	2005년 10월 이후 정부간 공동연구

자료원 : 외무성 발표 자료

나. 정부 반응 및 대응 동향

□ 경제산업성

- 당분간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통한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미국, EU도 2국간협상에 현재이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후에 도하라운드의 교섭재개의 가능성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분석해 나갈 방침임.
- WTO교섭 결렬의 주요 배경인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여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는 참가국 모두가 생각해야할 문제임. 향후 일본도 복잡한 관계 조정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지난번의 라운드는 8년 걸렸으며 도하 라운드는 개시로부터 5년 정도 지난 상태이며 조정에는 시간에 걸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⁶⁾

□ 농림산업성

- 빨리 교섭이 재개되어 전체의 합의하에 시장개방에 관한 수칙 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는 각종 협상을 통하여 WTO가입 각국에게 동 주장을 피력해 나갈 것임.⁷⁾
- 농산품 수출경쟁력의 강화를 꾀하고 자유무역의 타격을 최소한으

6) 인터뷰 : 일본 외무성 경제국 무역증진과 Mr. Hujimoto

7) 인터뷰 : 농림수산성 국제무역과 Mr. Kawai

- 로 줄일 수 있도록 시책을 동시에 고안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
- 일본은 WTO를 기본으로 이를 보완하는 교섭으로 FTA/EPA를 추진해 왔으나 2국간 협정은 문제가 각각의 교섭에 대한 해결과제가 너무 많은 상황임. WTO가 본기능을 발휘하기를 바람.
 - 일본의 무역정책의 기본은 WTO이므로 WTO의 합의를 구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현재로서는 기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FTA/EPA의 추진이 뒤쳐지지 않도록 국제정세를 주시하고 농수성도 교섭재개를 위하여 향후에도 노력해나갈 방침임.

다. 민간반응 및 대응 동향

☐ 경제단체연합회

- WTO를 통한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아온 일본으로서는 DDA협상 재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정부 차원으로는 9월말 총재선거까지 현저한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미국도 가을 중간선거까지 예비교섭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⁸⁾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일본에게 있어 WTO가 주목하고 있는 쌀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일본 농업의 근원에 관련된 문제임. 농림수산성이 제시한 농정개혁 비전을 토대로 향후 2년간 근본적인 농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
- 향후 세계 각국의 농업종사자와의 연대를 꾀하여 각국정부에 대한 움직임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 또한 WTO 교섭관에 대하여 농업종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의사 전달을 피력해

8) 인터뷰 : 경제단체연합회 제2본부 Mr. Kichimura

나갈 것임.9)

* 주 : WTO교섭 중단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없으며 동 자료는 담당자를 통한 인터뷰 조사, 신문자료에 근거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관련 담당자의 반응 및 대응이 주를 이룸.

미 국

가. FTA 추진 국가 현황

기발효	체결(발효예정)	진행중	검토 중
이스라엘 1985 캐나다/멕시코(NAFTA) 1994 요르단 2001 칠레 2004 싱가포르 2004 호주 2005 모로코 2006 엘살바도르* 2006 온두라스* 2006 니카라과* 2006 파테말라* 2006	바레인(2006.8.1 예정) 페루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오만(美상하원 비준완료)	태국 SACU 파나마 FTAA 에콰도르 UAE 한국 말레이시아	스위스 (예비 협의)

주1) *는 CAFTA-DR 협정국

주2) SACU(South African Custom Union) :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랜드

주3) FTAA(Free Trade of the Americas) : 미주 34개국

9) 인터뷰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부 Mr. Imoto

나. 정부반응 및 대응동향

□ USTR 및 행정부

- 'WTO 협상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의사(commitment)'를 계속해서 천명하는 한편, 'DDA의 대안으로 FTA 추진 강화' 식의 공식 논평은 극도로 자제

-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USTR 내부 소식에 정통한 현지 로비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금번 DDA 협상 중단 결과로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 더 힘을 실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

- 미국은 기존의 다자간 협상의 큰 틀 안에서 지역간, 또는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해 통상이익의 극대화 및 전략적, 외교적 목적 달성을 꾀하였으나, DDA 협상이 무기한 중단된 현재로서는 FTA 밖에 의존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됨.

□ 의회

- 공화당하원의원 Bob Goodlatte (하원 농업위원장)은 양자간 협상이 되었든 다자간협상이 되었든 미국의 농축산업자를 위한 교역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WTO의 대안으로 등장한 FTA 협상을 통한 농업 부문 교역 증가에 대한 기대 표명

- 민주당상원의원 Max Baucus (상원 재정위 소속)는 DDA 중단을 계기로 TPA 만료 이전까지 베트남 PNTR 지위 부여, 한국 및 말레이시아와의 FTA 체결 등에 미국 정부의 협상 역량 집중할 것을 촉구

다. 민간반응 및 대응동향

□ DDA/FTA 찬성론자

○ Lael Brainard (현 브루킹스 연구소 세계경제프로그램 대표, 前 클린턴 대통령 수석 자문관)는 DDA 중단과 한국 및 태국 등 FTA 협상국들로부터의 미국 요구 사항에 대한 저항을 감안할 때, 소위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로 대변되는 부시 행정부의 무역자유화 정책이 앞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인다고 예견

-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봄.

* 참고 : 경쟁적 자유화 정책은 FTA와 같은 소규모 협정 타결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협정(도하 협상을 지칭) 타결을 이룬다는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음.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협상시, 진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협상국의 경쟁국에 FTA 체결 등을 통해 대미 시장 진출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협상국을 압박하는 전략

- 한편, 같은 회의장에 참석했던 Schwab USTR 대표는 이와 같은 언급에 대해 “DDA 협상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국가였던 점과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FTAA 구상과 부시 행정부의 무역자유화 아젠다는 아직도 건재함을 우회적으로 시사

□ DDA/FTA 반대론자

○ Oxfam (빈곤퇴치를 위한 NGO)은 DDA 중단을 계기로 EU와 미국 모두가 역내 무역협정체결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향후 개도국 시장의 무차별적 개방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

EU

가. 유럽연합 FTA 추진 현황

기발효(년도)	협상 중	검토 중
스위스(73), 불가리아(93) 루마니아(93), EEA(94) 크로아티아(02), 알제리(76) 이집트(04), 이스라엘(00) 요르단(02), 레바논(03) 모로코(00), 팔레스타인(97) 시리아(77), 튀니지(98) 칠레(03), 멕시코(00) 남아프리카(00)	메르코수르, 걸프협력회의, CEDEAO, CEMAC, COMESA 16개국, CARIFORUM 15개국, SADC 7개국, ACP 14개 태평양국가	한국(예비협약)

자료원: EU 집행위 통상총국

나. EU 집행위 대응동향

- 집행위는 중단된 DDA 협상의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과 다자간 통상체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중단이 장기화 되고 다자 통상체제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즉, 이번 협상중단을 계기로 그동안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어 온 WTO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다자 통상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에 보다 적

극적으로 나설 움직임.

- 통상총국 집행위원 Peter Mandelson 은 성명을 통해 개발도상국 국가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통상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을 표명한 바 있고, 시장규모가 큰 아시아 지역 국가와도 개별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어, 현재 예비협상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임

다. 민간 대응동향

-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bres), 기업연합회(UNICE) 등 민간 기업 단체들은 DDA 협상결렬에 따라 다자주의가 퇴색되고 지역주의가 확산될 것을 경계하며, 이 경우 각종 통상규범의 난립과 중복으로 인해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 이들은 도하 라운드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며 양자간 무역협정 확산보다는 다자간 체제의 확고한 정착을 선호하는 입장
- 유럽 농민단체는 DDA 협상결렬을 환영하며, 농업부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

호 주

가. FTA 추진 국가 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뉴질랜드(1966) 싱가포르(2003) 태국(2003) 미국(2004)	중국 ASEAN 말레이시아 GCC 일본(타당성 조사)	인도

나. 정부반응 및 대응동향

- ☐ 호주는 다자간 협상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FTA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이미 4개국과의 FTA가 발효중이며 중국, ASEAN, 일본 등 주요 경제권과의 협상 내지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 ☐ 금번 DDA 잠정중단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DDA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이며 FTA 중심으로의 정책방향 선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는 상태임
- ☐ 야당은 정부가 다자간 협상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양자간 협상에 자원을 투입해온 것을 비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 측은 호주가 다자간 협상에만 전력투구를 했다면 지난 10년간 교역자유화와 관련한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음
- ☐ FTA와 관련한 정부측의 구체적 입장 발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DA협상의 잠정중단은 FTA의 확대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됨

다. 민간반응 및 대응동향

- 호주의 Australian Industry Group(호주 상의에 해당)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FTA 확대를 적극 지지해왔음 . 이번 협상 중단에 대한 입장 표에서 CEO인 Heather Ridout은 “다자간 협상 추진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으나 현시점에서 호주의 최선의 선택은 양자간 협상 추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 한편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호주 전경련에 해당)은 양자간 협상 노력은 다자간 협상의 근간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임
- 국제 원조 기구인 Oxfam Australia는 다자간 협상과 달리 양자간 협상은 개발도상국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비난함

인 도

가. FTA 추진 국가 현황

	특혜무역협정(PTA)	자유무역협정 (FTA)	기타 지역협력연합
주요내용	특정국가 또는 특정상품에 대한 관세우대	역내 무역자유화, 역외 독자적 관세주권	정치·경제적 고려에 따른 경제협력
기체결	방글라데시(1980), 네팔(1991), 부탄(1995), 미얀마(1995), SAPTA(1995), 아프가니스탄(2003), MERCOSUR(2004)	스리랑카(발효:2000) 태국(합의: 2004/ 82개 품목 조기실시계획 시행, 발효: 미정) 싱가포르(발효 2005. 8) SAFTA(발효: 2006. 1월 단계 적 발효, 최종합의 2016)	방콕협정 (1975), SAARC(1985), BIMST-EC(1997), IORARC(1997), BOBCOM(1999), IBSA(2004)
협상중	칠레	ASEAN (2007발효 예정) 방글라데시 한국 모리셔스	
검토중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중국, 일본, EU, 칠레,	

		말레이시아, 우루과이, 이집트, MERCOSUR, IBSA, GCC	
--	--	---------------------------------------	--

자료원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부수정

나. 정부반응 및 대응동향

☐ 양자협상 (FTA)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전망

- 카말 10)나쓰 상공부 장관은 향후 양자협상 (FTA)나 지역경제체제 구축에 더 힘쓰고, 더 많은 협상이 개시될 것임을 언급
- 또한, FTA등 양자협상이나 지역경제체제 (RTA)구축이 WTO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WTO체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¹¹⁾

다. 민간반응 및 대응동향

☐ 양자협상 (FTA)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희망

- 인도 의류제조업협회 우다니 회장은 금번 협상 결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 그러한 협상은 양자협상 (FTA)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더 많은 FTA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¹²⁾

☐ FTA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듯

- WTO 협상 체결에 대해, 인도 역시 큰 기대를 보이고는 있으나 농업분야는 인도 GDP의 20%이상, 인도 고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산업이고 최근 경제성장에 대해 소외되어 농

10) 힌두 비즈니스 라인 7월 26일자 인용
<http://www.blonnet.com/2006/07/26/stories/2006072602671200.htm>

11) 인도 상공부 논평 <http://commerce.nic.in/jan-feb06/html/main.htm>

12) 이코노미 타임즈 7월 26일자 인용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articleshow/1803045.cms>

민들의 자살이 줄을 잇는 등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인도 정부가 양보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 FTA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으나 금번 결렬로 인해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이 더 우세해 질 전망이다.

브라질

가. FTA 추진 국가 현황

구분	협정 내용	발효시기
기 체결	Mercosur(남미공동시장)	1991.11.29
	Mercosur-칠레	1996.10.1
	Mercosur-볼리비아	1997.2.28
	Mercosur-페루	2003.8.25
	브라질-멕시코	2003.5.2
	특혜관세협정 체결	
	Mercosur - 안데안	2004.1
기본 협정 체결 후 국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고 구체적인 세부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	Mercosur - 인도 2004년 1월 기본 협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한 2005년 12월에 와서야 양측은 450 개 양허 품목 리스트 및 세이프 가드 조치, 원산지 표기 양식 등 세부합의 사항을 발표함.	
	Mercosur - 남부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SADC) 남아공을 비롯한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등 남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SADC) 소속 아프리카 5개 국가와 2004년 12월 16일 메르코수르 제 27차 회의를 통해 양 블록간 특혜관세협정 체결. 2003년 통계에 의하면 메르코수르의 대 아프리카 수출량은 9억3500 달러로 이중 78%를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음.	

기본 협정 체결 후 국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고 구체적인 세부 협상 없이 대략적인 큰 틀만 잡아놓은 상태	Mercosur - 이집트 2004년 7월 FTA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 협정을 체결한 상태
	Mercosur - 모로코 2004년 11월 FTA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 협정을 체결한 상태
	Mercosul - GCC(걸프협력협약체) 2005년 5월 FTA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 협정을 체결한 상태
	Mercosur - 이스라엘 2005년 12월 FTA 설치를 위한 기본 협정 체결한 상태
	Mercosur - EU 1995년 기본 협약 체결 이후 2005년 까지 14차례 회담이 열렸으나 아직까지 FTA가 타결되지 않음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2005년까지 5차례 회담이 열렸으나 미주지역 34개 국가의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상태
추진 중	Mercosur -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국가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과 2000년 12월에 MOU 체결
	Mercosur - 일본 1996년 처음 협상을 가진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준비 회담이 열렸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
	Mercosur - 한국 1997년 첫 회담이 이루어진 후 수차례에 걸쳐 양측 대표가 만남을 가졌으며, 현재는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중임.
	Mercosur - 중국 자유무역지대 설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며, 양측이 모인 가장 최근 회의는 2005년 12월에 열렸음.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파라과이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문제 및 중국 상품 수입을 규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그 동안 중국과 메르코수르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음. 아직까지 FTA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연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임.
--	---

나. 브라질 정부 반응 및 대응 동향

☐ 통상 관련 소송 제소

-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24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결렬로 향후 통상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함.
- 도하 협상의 결렬로 앞으로 WTO 회원국들이 통상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향후 브라질이 미국 및 유럽연합(EU)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음을 시사함.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도

- 도하 협상 결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WTO 협상 타결이 최선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는 내부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FTA 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메르코수르) - EU

- 도하 협상 결렬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다방면으로 EU와의 무역협상을 추진 중이나 對 EU 수출상품 대부분이 EU의 자국 상품 보호주의와 관련이 깊은 제품이기 때문에, 확실한 협상 결과 도출이 어려운 상태임. 더구나 농업보조금 삭감과 같은 문제는 양자 협상인 FTA를 통해서도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WTO 협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하지만 많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브라질 정부는 EU와의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 미국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설치가 추진 중이나 역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브라질은 Mercosur과 베네수엘라가 합쳐진 5+1의 체제로 미국과의 협상을 희망하고 있으며, 도하 협상이 완전 결렬될 경우 미국도 브라질과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희망할 것이라는 다소 고무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브라질 방문

- 지난 7월 29일 브라질을 방문한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아모링 장관과의 회담을 가지고 미- 브라질 양국은 도하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국제회의를 5 ~ 8개월 안에 개최하기로 하는 합의 내용을 발표함.
- 아모링 장관은 "합의 내용은 개도국 그룹인 G20의 또 다른 주요 국가인 인도 정부에도 곧바로 전달될 것"이라면서 DDA 협상 재개를 위해 다른 개도국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뜻을 나타냄.

다. 민간 반응 및 대응 동향

□ 전체적 반응 및 대응 동향

- 브라질 기업 대부분은 도하 협상 결렬에 반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일부에서는 협상이 타결돼도 소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브라질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임.

- 업체들은 브라질 정부가 EU, 미국 등과 FTA 체결을 위한 대화를 서두를 것을 요구할 것이며, 설탕 및 면화 보조금 분쟁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미국 및 EU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농업분야

- 현재 브라질 농산물 연간 수출액은 약 430억 달러로, 도하 협상 결렬로 총 수출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 상당의 농작물 수출 증가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함.
- EU, 미국 등과 추진 중인 FTA 협상 타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도하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 자동차 산업

- DDA 협상 중단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 않음.
- 자동차 산업은 도하 협상 결과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WTO 차원 협상보다는 FTA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 섬유 산업

- 브라질 섬유산업협회의 경우도 세계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점을 찾아내기 어려운 WTO 차원의 협정보다는 FTA 체결이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중 국

가. FTA 추진 국가 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홍콩('03.6) 마카오('03.10) ASEAN ('05.7) 칠레 ('05.11) 파키스탄 ('06.1)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인도 일본 GCC(걸프경제통합기구)	아이슬란드 한국 인도 한중일 남아공

나. 정부 반응 및 대응 동향

☐ FTA 체결에 주력

- 중국은 다자간 협상인 DDA가 잠정 중단됨으로써, 각 국가간의 FTA 협력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이 DDA 및 FTA 협상 체결에 긍정적인 이유

- WTO 가입 이후, 한동안 중국의 대외통상정책은 WTO 가입 및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두었으며, FTA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
-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자유무역협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FTA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사례가 GCC(걸프경제통합기구)와의 FTA 체결인데, 이는 중국의 에너지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임.
- 또한, DDA 체결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자국의 공산품

수출을 더욱 더 늘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다. 민간 반응 및 대응 동향

☐ DDA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

- DDA 협력체결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이며, 부정적인 분위기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 농업분야에서 중국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수입도 전체 무역량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임.
- 중국은 농업분야의 DDA체결보다는 비농업 분야,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DDA 협력 체결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됨.

☐ DDA 협상 중단으로 인해 블록경제 강화 예상

- 7월 29일 중국 산둥(山東)성 위에하이(威海)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투자포럼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DDA 협상 잠정중단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함.
-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와 블록경제가 더 큰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임.
- 금번 DDA 협상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으나, 협상이 잠정 중단됨으로써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위기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동아시아 각 국가간의 지역 내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

상되며, 이를 통하여 'Post DDA'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그동안 동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협력 공동체인 10+3을 추진하고자 노력해왔음.

캐나다

가. FTA 추진 국가 현황

구분	해당 국가 및 체결 시기
기체결 (체결시기)	미국, 캐나다, 멕시코 (NAFTA, 1994년)
	칠레 (CCFTA, 1997년)
	이스라엘 (CIFTA, 1997년)
	코스타리카 (CCRFTA, 2001년)
협상중 (협의시작)	한국 (2004년) - 현재 6차협상('06.6월)까지 개최
	싱가포르 (2001년)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1998년)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중남미 4개국 (2001년)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검토중 (검토시작)	카리브공동체 (2001년, CARICOM)
	일본(2005년)
	EU(2002년)
	안데안 공동시장(2002년)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자료원 : 캐나다 외교통상부

- 2001년 코스타리카와 FTA를 체결한 이후, 캐나다는 한국을 비롯한 총 5건의 자유무역협상을 추진
- 아직까지 협상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된 건은 없으나 DDA 협상 중단으로 인해 협상이 다소 빠른 진척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카리브공동체, 일본, EU, 안데안 공동시장과의 FTA는 현재까지도 검토 단계임.

나. 정부 반응 및 대응 동향

- 협상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G6의 입장 차이가 다소 컸던 것이 사실이나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新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던 캐나다로서는 다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음을 시사함.

□ 외교통상부

- 캐나다 외교통상부 장관인 David Emerson은 “모든 WTO 회원국과 G6가 11차례의 공식 협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이를 단시간내에 조율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번 협상은 캐나다를 비롯하여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던 만큼, 잠정 중단 조치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라 언급함.

- 이번 중단조치와 관계없이 다자간 협상 및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개 국가와 7개 무역협정을 맺은 미국에 비해 캐나다는 아직까지 단 한건의 협정을 체결치 못했던 점을 꼬집음.

□ 농업부

- 캐나다 농업부 장관 겸 캐나다소맥위원회(Canadian Wheat Board) 회장인 Chuck Strahl 역시 “DDA 협상 타결은 캐나다

의 농업 및 식품가공업은 물론 기타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대한 계기'라 지적하면서 "캐나다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교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DDA 협상 중단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다자간 협상 추진을 통한 교역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강조함.

- 또한 "이번 잠정 중단 조치가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캐나다 정부는 농업 및 식품가공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보다 공정한 교역환경 조성은 물론 보다 많은 기회 창출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우리는 국내 및 수출지향적 농업분야의 이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시사(캐나다 역시 WTO에서 요구한 농가 지원 축소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향후 추이에 따라 지원의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

□ 결론적으로 캐나다는 모든 주정부와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국이 추구하는 최선의 협상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다자간 통상 협상을 적극 추진할 예정.

다. 민간반응 및 대응동향

□ National Post(7.25)

- 이번 협상 중단은 수출의존적 경제구조를 지닌 캐나다에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서, 향후 캐나다 정부는 다자간 협상과 FTA 추진을 가속화해야 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분석
- 캐나다 제조/수출인 협회(Canadian Manufacturers and Exporters) 회장 Perrin Beatty는 "캐나다와 같이 교역에 의존적인 형태를 보이는 국가의 경우, WTO 협상 타결을 통한 교역장벽 해소가 필수적인데 이번 협상 중단은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것"이라 지적함

- Grey, Clark, Shih & Association의 국제교역 컨설턴트인 Peter Clark은 “이번 협상 중단은 캐나다에 매우 부정적”이라 언급하면서, “149개 국가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 지적. 또한 “다른 나라들은 WTO 협상과 더불어 다자간 협상과 FTA 협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아직도 수수방관하는 형태”라고 비판.

□ Toronto Star(7.25)

- 온타리오주 옥수수 생산자협회(Ontario Corn Producers' Association)의 Ryan Brown에 따르면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미국의 농가보조금지원 삭감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막상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고 언급
- 국제교역 컨설턴트인 Peter Clark은 “온타리오 농가에서는 이번 협상이 타결될 경우 G6 대상국 중 특히 일본과 EU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중단에 대한 실망이 더욱 컸을 것”이라 지적
- 이와 더불어 Peter Clark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쟁점화 되었던 미 정부의 농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과연 미국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면서, 실제 보조금 삭감시 약 80만의 농업종사자들이 생계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과연 미국이 이를 수궁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함

□ Globe and Mail(7.26) - 로이터 통신 인용

- 여론에서는 WTO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보수당 정부는 당초 검토하였던 농가 지원 축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으로 지적

- 다만 이번 협상의 중단은 곡물 및 유채씨 등을 재배하는 수출지향적 농가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특히 미 정부의 전폭적인 농가 보조금 지원이 지속되는 만큼 수출가 하락에 따른 캐나다 농산물의 수출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이번 협상 중단으로 인해 각국들은 협상을 통한 이익증진 보다는 WTO 제소를 통해 이를 추구하려는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향후 재협상이 언제쯤 시작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음.

□ Toronto Star(7.26) - 로이터 통신 인용

- 전반적인 관점은 미국과 유럽의 큰 입장차이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
- 또한 미국과 유럽간의 보조금, 수입관세 등의 문제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이번 협상으로 인해 수출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던 만큼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분석
- 특히 2007년 미국 중간선거와 신속처리권한의 종료 등으로 인해 협상 재개 시점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이번 협상보다는 다자간 협상과 FTA 추진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

멕시코

가. FTA 추진 국가 현황

기 체결	협상 중	검토 중
NAFTA 1994 ¹⁾ G3 FTA 1995 ²⁾ 코스타리카 FTA 1995 볼리비아 FTA 1995 니카라과 FTA 1998 칠레 FTA 1999 유럽 FTA 2000 이스라엘 FTA 2000 TN FTA 2001 ³⁾ AELC FTA 2001 ⁴⁾ 우루과이 FTA 2004 일본 FTA 2005	멕시코-페루 ECA(6차 협상 개최) 한-멕시코 SECA(3차 협상 개최, 잠정중단) 멕시코-유럽 FTA(일부 분야 추가 개방 재협상) 멕시코-에콰도르 FTA 멕시코-싱가포르 FTA 멕시코-파나마 FTA	멕시코-호주 FTA(공동연구위원회 구성) 멕시코-뉴질랜드 FTA

1) 미국, 캐나다 2)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3)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4)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나. 정부 반응 및 대응 동향

□ 멕시코 경제부

○ 멕시코 정부는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양자간 FTA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특히,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촉진할 의지를 밝혔다.

- 멕시코 경제부 국제무역협상 담당 Angel Villalobos 차관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국내산업 보조금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자간 FTA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

- 멕시코 수출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저렴한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향후 양자간 FTA를 적극 추진할 것임.
- 금년 11월 말까지 이어질 멕시코 현정권은 현재 협상하고 있는 페루, 한국, 유럽과의 무역협정을 현정권 임기 내에 마무리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파나마

가. FTA 추진 국가 현황

기 체결	협상 중	검토 중
대만(2004. 1. 1) 엘살바도르(2003. 4. 11) 싱가포르(2006. 7. 1)	미국 칠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나. 정부 반응 및 대응동향

☐ 파나마 정부, 공식적 반응 미발표

○ 파나마 정부 및 정부인사의 공식적인 의견 미발표

-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인 관계로 관심 저조

☐ DDA협상은 FTA 협상과 무관

○ DDA 협상 잠정중단이 미국과의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듯

- 현재 미국과의 FTA 협상도 잠정 중단 상태
- 양국간 민감 부문에 대한 의견 차이로 잠정 중단
- 파나마운하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투표이후 미국과의 FTA논의 재개 전망

○ 미국과의 FTA협상은 DDA 협상과 무관하게 진행할 방침

칠 레

가. 칠레의 FTA 추진 현황

□ 칠레는 1970년대 중반이후 경제개방에 의한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한 이후 WTO, APEC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확대를 통해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음.

○ 1997년 캐나다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3개국과 FTA를 체결 했으며, 중남미 인근 10개국과도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여 평균수입관세율이 1.9%('06.2월 현재) 정도임.

○ 중국과의 FTA가 금년 7월 중 발효 예정이었으나 국회비준 지연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일본과는 2006년 2월부터 협상 시작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현황 (총 43개국과 체결)>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캐나다('96), 멕시코('98), 중미5개국('99), EU 25개국('02), 미국('03), 한국('03), P4 3개국('05), 중국('05), 파나마('06)	일본	인도, 콜롬비아

*주 : 중미 5국: Costa Rica, El Salvador, Nicaragua, Honduras, Guatemala

EFTA 4국: Iceland, Liechtenstein, Norway, Switzerland

P4 3국(나머지 1국은 칠레): Singapore, New Zealand, Brunei

<칠레의 경제보완협정 체결현황>

체결국가	발효일자
멕시코	1992.1.1(1998년 FTA로 전환)
베네수엘라	1993.7.1
콜롬비아	1994.1.1
에콰도르	1995.1.1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1996.10.1
페루	1998.7.1
볼리비아	1993.7.7

나. 정부 반응 및 대응 동향

□ 칠레에는 큰 타격 없을 것, 기존의 정책방향에 변화 없어

- 외무부장관 Foxley는 칠레가 이미 주요 교역국들과 FTA 및 관세보완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금번 결렬로 인해 크게 타격받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
- 정부 및 재계에서는 이번 협상 결렬을 계기로 그동안 칠레가 양자간 무역협정에 매진해 온 것이 올바른 정책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칠레는 앞으로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FTA 체결 확대를 위한 검토와 노력을 계속 할 것이나, DDA 결렬이 이러한 정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님.

태 국

가. FTA 추진 국가 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호주		
아세안-중국		
뉴질랜드	바레인	캐나다
인도 (82개품목)	미국	대만
페루	일본	홍콩
- 체결 되었으나 원산지 표시제 협상으로 인해 유효하지 않음	아세안-대한민국	체코
BIMSTEC (Bangladesh India Myanmar Srilanka Thailand Economic Co-operation)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칠레
- 유효하지 않음		

나. 정부 및 민간단체 의견

○ 태국 농산품, 아직까지 국제 시장의 무역 장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아직까지 농업관련 종사자가 태국 국민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함
- 주요 농산품인 쌀, 카사바, 닭고기, 설탕의 높은 관세율

주요 상대국의 농산품별 관세율

상대 국가	상품	관세율
일본	쌀	777%
캐나다	닭고기	238%
대한민국	카사바	887%

자료원 : 태국 상무부

- 미국, EU 국가의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태국 상품의 경쟁력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실정임

미국, EU의 보조금 지급 현황

품목	미국 (US million\$)		EU (million EURO)	
	생산 보조금	수출 보조금	생산 보조금	수출 보조금
설탕	1,100	n.a	5,800	400
쌀	607	200	556	30
닭고기	n.a	120	n.a	120(million\$)

자료원 : 태국 상무부

□ 상무부

- 카룬 키티사타폰(Karun Kittisataporn) 상무부 장관은 DDA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이 자국 시장 개방을 위해 양자 간 협상이나 FTA를 체결할 것이라고 발언
- WTO의 역할은 자유무역의 지도자로부터 변해야 할 것이라고하면서 앞으로 WTO는 많은 나라들의 양자 간 협상의 결과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다른 나라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상공회의소

- 폰싯 팻차린타나쿨(Pornsilp Patcharintanakul) 태국 상공회의소 부사무소장은 태국의 농산물 시장의 확대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
-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FTA 협상을 늘여 나갈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고 주장

※ 자료원

- 1) 태국 상무부 WTO 담당부서 Mr.Chet Suksang 인터뷰
- 2) 태국 Smart 자동차 산업의 사장 Mr.Samart 인터뷰
- 3) 태국 Rocky Seide 섬유 회사 사장 Mr.Jatuporn 인터뷰
- 4) 태국 Daily Newspaper 2006년 7월 25일자 기사 중 정부 공식 논평

말레이시아

가. FTA 추진 국가 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일본('05.12)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인도, 미국, 한국

나. 정부 반응 및 대응 동향

□ DDA 협상 중단이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

- 말레이시아는 FTA를 통해 세계시장의 지역 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
- 통상산업부장관 라피다(Datuk Seri Rafidah Aziz)는 DDA협상 중단때문에 미국과의 FTA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레이시아 국영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힘

싱가포르

가. FTA 추진 국가 현황

□ FTA체결에 적극적

-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FTA HUB를 지향하고 있으며 도시형 개방경제체제이자 대외무역의존형 경제 구조로서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추진, 경제관계가 긴밀한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을 시도해오고 있음.

< 싱가포르의 FTA 체결 및 협상추진 현황(2006년 7월 현재) >

기체결 국가(11개)	협상 혹은 추진합의 국가(15개)
▪ ASEAN Free Trade Area ▪ Australia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 슈타인) ▪ Hashemite Kingdom of Jordan ▪ India ▪ Japan ▪ Korea ▪ New Zealand ▪ Panama ▪ Trans-Pacific SEP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 United States	▪ ASEAN &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ASEAN-Australia and New Zealand ▪ ASEAN-India ▪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JCEP) ▪ ASEAN-Korea ▪ Bahrain ▪ Canada ▪ Egypt ▪ Mexico ▪ Pakistan ▪ Peru ▪ Sri Lanka ▪ State of Kuwait ▪ State of Qatar ▪ United Arab Emirates

자료원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 싱가포르는 1999년부터 주요 무역파트너들과 FTA를 추진하는 정책을 펴 왔으며 2000년 9월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이후

일본, 호주, 미국, 요르단,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에 이어, 2005년 6월에는 칠레·뉴질랜드·브루나이와의 4국간의 FTA 협상을 타결하기에 이룸.

- 캐나다, 인도, 멕시코, 카타르 등과는 FTA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며, 추가로 바레인, 이집트, 페루, 파나마, 스리랑카, 쿠웨이트 등과는 FTA를 추진기로 공식 합의함.
- 이 외에도 ASEAN 회원국으로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와 ASEAN과의 FTA 추진에도 참여하고 있음.
- 한국과는 2005년 8월 정식서명하고 2006년 3월 2일부로 발효된 바 있음.

나. 정부 반응 및 대응 동향

- ☐ 싱가포르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및 산업통상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가 금번 DDA 협상 중단과 FTA를 연관지어 발언한 바는 없음.
- DDA협상 중단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주요국가 및 지역간의 FTA 체결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도 FTA 체결과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매우 유연하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음.

다. 민간 반응 및 대응 동향

- ☐ 싱가포르 비즈니스 사회는 정부의 FTA 추진정책 및 지역 경제 블록 참여 등에 대해 전적으로 믿고 지지하는 바 민간 차원에서의 특별한 반응 혹은 대응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II. 시사점

1. DDA재개를 위한 노력 및 관심유지 필요

□ DDA협상 재개 가능성 존재

- 현재, G6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나마 DDA협상의 재개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미국·브라질 향후 5~9개월 이내에 DDA협상의 마무리를 위한 노력 합의
 - 브라질의 10월대선, 미국의 11월중간선거이후 급격한 진전 가능성도 존재

□ FTA는 궁극적으로 다자간무역협정으로 향하는 징검다리

- FTA는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국들에게는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바람직한 FTA는 회원가입이 자유롭고 비회원국들에 대한 무역장벽도 점증적으로 줄여야 함
- 다자간협상 없이 FTA만 존재할 때 FTA 회원국들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와만 FTA를 유지하고 회원확대를 거부할 때 지역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할 수 있음¹³⁾
- 각 국가간의 다양한 수준의 FTA는 스파게티보울효과와 같은 세계무역질서를 복잡화 시킬 우려가 있음
 - 스파게티 보울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FTA 비회원국이 회원국을 통해 다른 회원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규정을 규정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회원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특혜관세를 부여하

13) 이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로 Jagdish Bhagwati가 대표적이다. 다음 글 참고. Bernard Hoekman and Maurice Schiff. (2002). "Benefiting from regional integration," in *Development, Trade, and the WTO: A Handbook*,

지 않아 복잡한 관세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을 말함¹⁴⁾

- 이와 같이 FTA가 세계무역질서의 복잡화와 지역간 보호무역주의로 도구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WTO와 같은 다자협상이 유지되어서 전체적인 FTA의 실태와 운영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¹⁵⁾

2. 전 세계적 FTA확산에 대비

☐ 전반적 FTA협상 확대

- FTA확대 대비책 마련 필요

- FTA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보게 될 피해를 우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FTA협상 체결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은바 우리나라의 FTA협상이 늦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손실이 우려됨

☐ 한미FTA 마무리와 타국가와 FTA협상 확대 필요

- 전세계적인 FTA확대 가속화로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주요국가와의 FTA협상의 조기 시작도 고려해야 함
- 단, 여러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시 각 FTA협상에서 합의되는 분야별 규정들이 다양한 FTA간에 유사한 수준과 조건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각 FTA별로 무역규범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함

14) 참고자료 : Arvind Panagariya. (1999). "The regionalism debate: An overview," *The World Economy*, 22(4), pp. 455-476. Emanuel Ornelas. (2005). "Trade creating free trade areas and the undermining of multilateralism," *European Economic Review*, 45. pp.1717-1735.

15) 긍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측은 FTA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와 WTO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Deep integration)을 통해 다자주의와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 UNCTAD (2005).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The New Interface*.

첨부 1. DDA협상진행과정

□ 2005년까지 DDA 협상 일지

- 2001년 도하각료회의 : 새무역규범논의를 위한 도하개발어젠다 (DDA) 출범
 - 2003년 칸쿤각료회의에서 협상기본골격 합의할 것을 목표
 - 2005.1.1까지 최종 타결 목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반덤핑, 보조금),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분야 중점
- 2003년 칸쿤각료회의 : 협상기본골격 합의 실패
 - 개도국과 선진국의 첨예한 대립속 농업부문과 싱가포르이슈¹⁶⁾에서 의견차로 합의 도출 실패
- 2004년 : July Package 합의
 - July Package는 2004.7.27 ~ 29일간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협상의 Framework를 설정하기 위한 제안서
 - 당초 2005.1.1 최종타결 목표를 12월 홍콩각료회의때까지 연기
- 2005년 홍콩 각료회의 : DDA 협상의 모멘텀 확보
 - 홍콩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결렬에 대한 불안감을 회원국들이 공유함에 따라 대·내외적 협상 진행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협상 목표를 하향 수정하여 회원국의 입장 확인과 향후 협상일정 및 안건의 구체화선에서 합의
 - 2006.12월로 DDA 최종타결 목표기한 연기
 - 2006.4.30까지 농업 및 NAMA 협상세부원칙 도출 목표
 - 2006.7.31까지 포괄적 이행계획서 초안 제출 합의

□ 2006년 DDA 협상 일지

16) 싱가포르 이슈 : 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포함. 개도국이 의제포함에 반대

- 2006.4.30 - 농업 및 NAMA 협상세부 원칙 도출 합의 실패
 - "Basic Triangle of trade-off" : EU와 G20¹⁷⁾는 미국의 국내농업보조금 삭감을 주장, G20와 미국은 EU의 농산품관세율 감축요구, EU와 미국은 개도국의 공산품과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요구
 - 2006.7.31로 협상세부원칙 기한 연장
- 2006.7.17 - G8회의에서 협상세부원칙 도출기한 8월 중순으로 연장
 - WTO 회원국간 의견차이를 좁이지 못하여 7.31일 협상세부원칙 합의가 불가능하여, G8회의에서 비회원국인 러시아를 제외한 G7과 회의에 초청된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들이 DDA 세부원칙 도출기한을 연장
- 2006.7.24 - WTO 의장 파스칼 라미 DDA 협상 잠정중단 선언
 - '06.7.23~24 주요 6개국(G6) 통상장관회의에서 끝내 농산품관세와 보조금삭감과 NAMA의 관세감축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
- DDA 협상 잠정중단 선언 이후
 - EU는 무역원활화와 같은 개발을 위한 어젠다만은 계속 논의 할 것을 제의, WTO의장 파스칼 라미 모든 회원국들이 협상재개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 형성때까지는 개별 어젠다 협상진행을 반대¹⁸⁾
 - 미국, 최빈개도국에게 부여하기로 한 97% 최빈개도국 수출품목 무관세·무쿼터는 DDA협상 타결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의미의 발언을 함
 - 인도, 호주, 미국, 규칙에 근거한 다자간 무역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재개 의지 표현
 - 파스칼 라미, DDA 협상재개를 위해서는 기존협상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양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

17) 인도, 브라질을 중심으로 DDA협상에서 농업보조금 삭감을 주장하는 개도국 그룹

18) GATT체제와 WTO체제 아래에서 열린 모든 Round는 일괄타결을 원칙이었으므로, EU의 요구는 WTO협상의 관례를 깨는 것임

2006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기획조사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2006.1
06-002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2006.1
06-003	베트남의 WTO 가입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2006.1
06-004	한-인도 CEPA 체결과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2006.1
06-005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6.2
06-006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2006.2
06-007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2
06-008	對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2006.2
06-009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2006.2
06-010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3
06-011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 전망	2006.3
06-012	수출할 때 따라야하는 일본의 인증마크	2006.3
06-013	한-칠레 FTA 발효 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2006.3
06-014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06.4
06-015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2006.4
06-016	2006. 2/4분기 수출전망 및 대한수입규제 현황	2006.4
06-017	주요 분야별 대미 FTA체결국의 대응현황	2006.4
06-018	중,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2006.4
06-019	섬유교역자유화 1년을 평가한다: 서남아시아 섬유산업 동향 및 영향	2006.4
06-020	일본 소비트랜드의 변화와 시사점	2006.4
06-021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제 도입과 시사점	2006.4
06-022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의 변화와 기회	2006.4
06-02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아세안 수출유망품목	2006.5
06-024	장강삼각주 IT산업 성장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6.5
06-025	한중일 산업협력, 그 첩경	2006.5

06-026	중국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2006.5
06-027	탄소시장과 우리의 참여 가능성	2006.5
06-028	해외진출 한국기업 원고 대응동향 및 경쟁국 대응사례	2006.5
06-029	2006년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2006.5
06-030	한-아제르바이잔 및 한-UAE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확대방안	2006.6
06-031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 - 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2006.6
06-032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1) : 북미편	2006.6
06-033	아프리카 新성장 엔진, 앙골라를 주목하라	2006.6
06-034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	2006.6
06-035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2) : 구주편	2006.6
06-036	환율파동에 따른 한일수출경쟁력 비교	2006.6
06-037	200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6.6
06-038	2006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6.6
06-039	중국 내수시장 공략,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라	2006.7
06-040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 및 피해사례 조사	2006.7
06-041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2006.7
06-042	아랍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대응책	2006.7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6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6.1
06-002	2006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6.1
06-003	2005 다시보기, 2006 미리보기	2006.1
06-004	APEC 투자환경설명회 2005 종합보고서	2006.1
06-005	극동 러시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6.2
06-006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 한류, 유행에서 산업으로 -	2006.2
06-007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 러시아 . 캐나다 편	2006.3
06-008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I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호주 편	2006.3
06-009	IK Annual Report 2005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6.3

06-010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6.6
06-011	유럽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6.6
06-012	러시아 SEZ 진출 가이드	2006.6
06-013	2006 서울국제식품전 결과보고서	2006.6
06-014	5년을 앞서가는 중국 비즈니스 전략	2006.6
06-015	현장에서 읽는 중국 환경시장 : 중부 6개성을 가다	2006.6
06-01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7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006.7
06-019	2006 해외투자백서	2006.7
06-020	Q&A로 본 중국투자 A to Z	2006.7
06-021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투자 포커스	2006.7

□ 산업리포트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주요국의 환경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4
06-002	주요국의 전자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3	주요국의 자동차부품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6.6
06-004	Global Medical Map (의약품편)	2006.6
06-005	Global Medical Map (의료기기편)	2006.6
06-006	주요국 IT 유망분야 및 진출방안	2006.6
06-007	주요국의 신발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8	주요국의 산업용 섬유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6
06-009	주요국의 기계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6 CHINDIA 시장진출전략 심포지엄	2006.6

작 성 자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연식관장 (파나마무역관) ◆ 박한진차장 (상하이무역관) ◆ 김종현과장 (토론토무역관) ◆ 이정선과장 (위싱턴무역관) ◆ 홍정아과장 (멕시코시티무역관) ◆ 박민준과장 (뉴델리무역관) ◆ 최숙영과장 (산티아고무역관) ◆ 나범근과장 (칼라룸푸르무역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미과장 (도쿄무역관) ◆ 이성훈과장 (방콕무역관) ◆ 지윤정과장 (상파울루무역관) ◆ 이제혁과장 (브뤼셀무역관) ◆ 최원석과장 (시드니무역관) ◆ 김성재과장 (통상전략팀) ◆ 안혜미대리 (통상전략팀) |
|---|---|

WTO/DDA 협상 잠정중단이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6년 8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